

■ 2023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 회의일시 : 1차) 2022년 12월 2일(금요일) 13:00~18:00
2차) 2022년 12월 12일(월요일) 09:3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일권, 박우찬, 박지수, 최은혜, 홍현숙

□ 1차 심의 총평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 공간이 처한 현실과 이를 운영하는 지원자의 노고를 익히 알기에 심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민간전시공간사업은 시각예술에서 창작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창작 공간 활성화의 증진과 우수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예술의 가치를 함께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공간 사업 운영에는 성장형과 신생형으로만 구분하였다. 심의 대상은 총 46건이었으며, 지원금은 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 4억 4천 5백만원으로 18개 곳을 선정하였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의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전수 검토제를 적용하여 비공개로 심의했다. 그래서 1차 심의 당일은 심의위원 모두가 심의 대상지를 대략 파악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 대해 더 신중하게 평가하고, 심의위원들의 이견을 논의 할 수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이 어떠한 정체성을 표방하는지, 계획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가와 비평가 등이 활발히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들이 시민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 등 공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리 공지된 심의 기준에 따라 민간전시공간의 운영 역량(40%)과 사업계획의 체계와 충실성 (40%), 공간 운영의 안정성과 개방성(20%)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공간의 운영 역량 평가에서는 신생형과 성장형의 구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의 체계적 역량에 대해 심의하였고, 사업 계획의 체계와 충실성 평가에서는 제시하고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동시대 시각예술의 흐름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공간 운영의 안정성과 개방성에 관해서는 각 공간마다의 안전시설 유무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해 위기관리 및 대처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는 심의 기준의 각 항목에 고르게 부합하는 공간들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들 중에서 운영 역량이 안정적이고, 세부 계획과 예산안이 실현 가능하며, 공간의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물로 도출되는 곳에 평가를 집중하였다.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사업계획안과 자생하려는 방향성이 엿보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얼마나 참신한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었다. 심의위원은 공통적으로 공간

마다 설정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활동과 역량이 드러나는 곳, 사업계획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곳, 참신한 화두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비도수권 지역을 세심히 검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동시대 시각예술의 환경과 현실에 문제의식을 지닌 알찬 기획을 지향하고, 각 공간이 지닌 정체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여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전시, 유통,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변화는 시대에 맞는 대안적 모습이라 생각되었다. 이를 통해 공간의 매개적 역할을 고민하고, 시대와 관객의 변화에 맞춰 공간을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차 선정대상지는 민간전시공간으로서 성격에 맞는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을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 자생적으로 운영을 모색하는 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획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에서 예술의 확산과 소통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는 곳을 선정 대상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반면에 최소한의 환경에서 운영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나 지나치게 실험적인 구상으로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기획을 제안한 곳, 운영진에 너무 편중된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곳은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고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고정수입은 계속 불확실한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운영자의 노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시공간의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면서도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의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제도적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간의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1차 심의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 2차 심의 총평

민간전시공간은 새로운 시각예술 영역의 확장, 신진 작가의 발굴, 미술인의 역량 강화,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새로운 형태의 예술실험 등을 통해 한국미술의 발전과 다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간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민간전시공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임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심의는 민간공간의 운영역량과 사업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구성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문화 예술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지역 민간전시공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 안배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심의는 지원의 적합성 및 운영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기대효과, 공간 운영의 안정성 및 개방성을 기준으로 삼고 1차 서류 심의를

통과한 18개 전시공간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전시 공간 관계자의 설명(5분)에 이어 심의위원들의 질의 응답(10분)으로 진행되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심의는 전시 공간이 새로운 담론과 이슈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공간 운영의 주체가 자신의 기획에 대해 정확히 어떤 방향성과 주제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민간전시공간의 경우 운영조직과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운영조직의 안정성과 예산이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간전시공간은 안정성이 취약한 공간이라 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민간전시공간> 심의는 새로운 담론과 이슈 창출을 위해 기여하는 공간, 자신의 기획에 대해 정확한 방향성과 주제 의식을 갖고 있는 공간,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 안정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새로운 작가의 발굴 노력과 예술인의 역량 강화, 지역 기반의 창작 여건 강화, 미술의 영역 확장 등에 대해 노력하는 공간을 높게 평가하였다. 공간의 안전성은 보험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안전대책 마련과 위기관리 대처방안을 확인하였다. 지역 균형 배분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최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간은 새로운 담론의 창출과 작가 발굴, 비평역량 강화, 큐레토리얼 역량 강화, 문화 예술 네트워크 토대 강화, 예술 저변 확대, 국제교류 기여 등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의 발전과 미술 문화의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전시공간은 미술관과는 달리 안전에 취약한데, 보험 가입이 된 곳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화재보험이 대부분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자기 방어장치로 인명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 관객이 저조한 공간들은 관객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 일동